

한국 교회 정치참여의 종착지 ‘진영을 넘어 복음으로’

■기획특집-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 4 끝 — 송오식 (광주기윤실 공동대표,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

한국교회의 강단이 훼손되고, 세상이 교회를 ‘극우집단’으로 평가하며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처해있다. 광주기윤실 4월 세미나에서 송오식 전남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발제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이 오늘의 한국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미션21에 4회에 걸쳐 기획특집으로 게재된다. /편집자 주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종착지, 교회의 본질 회복

지난 세 차례의 기고를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정치참여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학적·법학적 관점에서 이를 성찰해 보았다. 한국교회의 현주소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적 신뢰도를 잃어버리고 ‘정치적 신앙’이라는 이상숭배와 강단의 정치화, 그리고 성도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정치적 승리나 세속적 영향력의 확대를 통해서만 결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3중직(왕, 제사장, 선지자/예언자)은 오늘날 한국교회에 정치·사회적 영역에 참

여할 때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와 행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지배력의 획득이 아니라 ‘섬김의 왕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고통의 분담과 사회적 치유(화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 세상에 대언하는 직분, 사회적 공의와 약자 대변에 있다.

더 나아가 오직 한 가지 길, 즉 교회가 가진 고유한 본질을 회복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고백해 온 교회의 네 가지 본질인 거룩성(Holiness), 하나됨(Oneness), 보편성(Catholicity), 사도성(Apostolicity)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모든 진력을 다해야 할 때이다.

1. 거룩성(Holiness)의 회복: 세속 권력과 거리두기와 예언 자적 영성

교회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상실한 것은 바로 ‘거룩성’이다. 거룩함을 좇아는 히브리어 ‘코데쉬’는 본질적으로 ‘구별됨’과 ‘하나님께의 헌신’을 의미한다. 교회의 거룩성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은둔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히브리어에 살아있고 세속의 권력 논리와 타협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의미한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상실한 이유는 지상의 권력을 회복하거나 특정 이념을 절대화하는 세상의 정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이다. 강단이 정치적 선동의 전시장으로 변질되고 복음이 진영 논리로 왜곡·화해될 때, 교회의 도덕적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속 정치 권력과 건강히 한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교회가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는 ‘순례자적 비판 거리’를 유지할 때에만, 비로소 세상의 불의와 부패를 향해 하

수 있는 지적·영적 결백함,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첫 번째 본질인 거룩성이다.

2. 하나됨(Oneness)의 회복: 극단적 진영 논리를 넘어선 복음적 연대

극단적인 진영 논리에 갇혀 사회적 신뢰도 나락에 떨어진 한국교회의 현주소 ‘정치적 신앙’이라는 이상숭배와 강단의 정치화, 성도 양심의 자유 침해 짙은 그늘 정치적 승리나 세속적 영향력 확대 통해서만 결코 교회의 위기 극복할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지배력의 획득 아닌 ‘섬김의 왕직’ 고통의 분담과 사회적 치유, 사회적 공의와 약자 대변 ‘교회 본질 회복’이 열쇠

나눔의 공의를 선포하는 ‘예언 자적 목소리’를 회복할 수 있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불의를 향해서도 성경적 양심에 따라 엄중히 ‘아니오’라고 말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교회는 세상의 양극화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교

회 내부로 끌어들이며 극단적인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의 ‘하나됨’은 맹목적인 획일성이 아니라 이념적 동질성을 의미하지 않는다. 교회의 실제 이념 지형이 다채롭듯, 교회 안에는 다양

한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혹은 특정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지 않고 모든 인간과 피조세계를 아우르는 보편적 진리를 지향함을 뜻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는 오랫동안 보수 진영의 ‘반공’ 논리나 진보 진



송오식 교수가 광주기윤실 세미나에서 ‘한국교회 정치참여의 진단과 성찰’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3. 보편성(Catholicity)의 회복: 파편화된 이념을 넘어선 공공선과 약자 보호

교회의 ‘보편성’은 복음과 교

회의 ‘경제적 평등’ 등 특정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안만을 선택적으로 발제하여 사용하는 ‘보편적 가치의 편향화’를 겪어 왔다.

교회가 보편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진영 논리를 넘어 성경이 일관되게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인간의 존엄성, 약자 보호, 공의와 평등)를 정치참여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 독식과 내 편 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세상의 방식과 달리, 공공선학적 관점에서 전체 공동체의 이익과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성경이 끊임없이 대변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즉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적 대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내 집단의 기복권을 지키는 정치참여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씻고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불로초 정치를 바랄 때, 교회의 보편성은 비로소 사회 속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된다.

것이다. 결과주의에 함몰되어 거짓 선동이나 혐오 표현을 일삼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과정에서 거룩함과 정직성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보편을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사도성의 실존이다.

맺음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례자의 길

한국교회의 정치참여에 대한 진단과 성찰의 결론은 지명하다. 정치는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없으며, 세속적 승리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권과 지상의 시민권을 동시에 지닌 ‘두 왕국 사이를 걷는 순례자’이다. 순례자는 지상의 정치를 절대화하여 이상으로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인정하며 공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내 진영에 속해 인탁함을 누리 기보다,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지라도 균형을 잡으려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

교회의 거룩성, 하나됨, 보편성, 사도성을 회복하는 일은 결국 우리의 시선을 지상의 권력 투쟁에서 돌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만든다. 한국교회가 지상의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기를 그치고,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진력을 다할 때, 잃어버린 공적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의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죽 미션21 창간27주년



(사)실로암사람들



대표 김용목

- 목적 (사)실로암사람들은 성경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으로 장애인 선교·인권·복지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1976년 7월 15일에 창립한 기독교 장애인단체다.
- 비전 및 미션
 - 비전: 생명(선교), 평화(인권), 사랑(복지)의 공동체
 - 미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모두를 위한 공동선을 추구한다.
 - 가치: 관대, 존중, 협력
- 공동체 고백
 - 하나님 앞에서 장애는 능력 아니다. 장애인은 아름답습니다.
 - 우리는 모두 삶을 배우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 우리는 장애인들을 존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실로암의 하는 일



- 정보제공과 권리옹호
- 장애인 문화체육 증진
- 장애인정책 개발
- 지역사회중심서비스
- 장애인성과 가족지원
- 회원조직화
- 지립생활 역량강화

주소: (617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효덕로 201, 4층(행입동, SH빌딩) · 전화: 062-672-7782 FAX: 062-672-6622
홈페이지: <https://www.실로암사람들.kr> 카페: <https://cafe.daum.net/silam76>
E-mail: lovesilam@daum.net · 후원계좌: 국민은행 567001-04-217980 (실로암사람들)

목사면직공고

본 노회는 정옥희 목사에 대하여 노회 회칙 및 결의에 따라 2026년 6월 17일부로 면직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신공회광주동노회